



김보경, 나는 오늘도 뛰다

스물 여덟 살. 직장인 4년차.

사회 초년생의 풋풋함 보다는

점점 무르익어 가는 시기.

하지만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찬 유전자는

오늘도 심장이 뛰게 한다.

런던올림픽과 한우 선포터즈를 향한 열정의 시작!



나란사람- 찰칵! 삶과 일상을 담은 사진사
찰칵! 찰칵! 나는 작가가 아니다.
사진찍는 것을 즐긴다.
일과 취미로 쌓은 내공으로
오늘도 셔터를 누른다. 찰칵!



발견. 열정의 DNA
열정의 동반자는 도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나의 DNA.
2012년 도전은 3가지 마라톤 완주, 수영,
그리고 런던올림픽 관람. 튼튼한 체력은 기본!
이제 마지막 도전인
런던 올림픽 관람을 위해 열정을 불태운다.



1. 니들이 한우 맛을 알어? 한우 맛 알리기 시식회

- 외국인들에게 한우가 좋다고 100번을 말해 봤자 효과가 없음.
- 맛을 보고 먹어보아야 한우가 얼마나 좋은지 홍보 할 수 있음.
- 한우 불고기/ 갈비/ 한우 버거 혹은 취사가 어려운 경우 육포로 대체

2. Shall we take the photo?

- 올림픽 현장을 사진으로 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우 알리기 포토라인에서 전문가의 손길로 사진을 찍어주고 이메일로 발송한다.

3. 한우도 알고, k-pop 도 알고!

- 한우와 k-pop을 함께 노래하며 춤도 가르쳐 주는 퍼포먼스로 하나되는 화합의 장 만들기